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성경말씀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노력하면 자꾸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 **믿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초대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작은 음성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12)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3:15)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말을 안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오직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4-5) 육신의 일들, 곧 죄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과 혼동이 되어 주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혼돈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된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착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깨끗하고 고요한 물 한가운데에 돌이 던져져서 그 파동이 전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적인 일에 바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적인 일과 생각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3-4시간씩 충분히 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 중 50 퍼센트 이상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듣기 힘듭니다.

제 교회의 어느 분은 주님의 정확한 말씀을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그분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분은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방언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 금식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교회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사도행전 13:2)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기도를 하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육의 정욕들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자주 금식을 하였고 모세도, 예수님도,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혹은 자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과 말을 들어놓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육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에게 탐욕이 있는 사람은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기도와 금식으로 참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고, 자신의 욕심과 뜻을 다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42)

만약 우리의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기를 꺼려하면 주님께서서는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을 어기며 땅에 드러누워 떼를 쓰고 울면, 부모는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신경 쓰지 않고 그가 달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자신의 강한 자아를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바꾸어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엉뚱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하고 강압적으로 주님을 조종하려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제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도를 온전히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 기다림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 받을 때에 무어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음질치게 하라.” (하박국 2:1-2)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고 기도를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방언을 하는 분은 방언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주님, 제가 한 방언의 통역을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는 회개를 충분히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은 상태에서, 또 마귀를 완전히 쫓아낸 상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거나, 마귀가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나 공격을 받고 혹은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령 충만한 가운데/ 꼭 확증을 받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이 예언을 하려합니다. 이럴 때 듣는 음성은 다른 외부의 음성과 혼동되기 쉽고 또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사도나 목사라는 음성을 듣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영을 분별해야 하고, 또 주님께 말씀을 확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삶을 좌지우지 하는 음성은 꼭 확증을 두세 번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저를 처음 보고 목사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너는 목사다.”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정말일까? 나의 교만으로 나온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일 동안 작은 옷장에 들어가서 화장실 갈 때와 먹을 때만 나오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찾으며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저는 도대체 뭘니까?” 하며 저의 콜링(소명)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기도하고 자는데 새벽 3-4시쯤에 꿈에서 제가 우체통을 열어 온 편지를 보았는데, ‘YOU ARE A PASTOR!’ 라고 적힌 편지를 보고 깨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신학대학을 가야겠구나.’ 하고 아는 목사님께 물어봐서 시카고 무디 신학대학에 등록하고 갈 준비를 모두 해놓은 상태에서 또 그 옷장에서 신학대학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Why are you trying to learn from men? I will teach you!” (너는 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느냐? 내가 가르쳐 주마!)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배운다고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니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대학에 가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콜링(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대로 할 뿐입니다. 저는 “이 음성이 주 하나님이라면 제게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하고 바로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다니.’ 그러면서 더 읽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니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삼 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십오 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1:15-20)

바울은 혈육과(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 이것은 하나의 확증이지만 또 다른 확증 하나를 더 주세요!” 하고 바로 뒤로 성경을 넘겼습니다. 애써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저는 “네. 성령님께서 저희의 선생님이시니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군요?” 하며 주님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야, 넌 마귀에게 속았어.” 하며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인정받으려면 신학교에 가야 된다.” 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반복적으로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일정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던, 하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문제지 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갈라디아서 1:10)

신학대학은 원래 사람이 만든 조직이고 미국에서 제일 처음 만든 신학대학도 100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르치고 시카고 무디 신학대학을 만든 무디조차도 어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직접 자신이 공부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신학대학인 회당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와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이미 콜링(소명)을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어느 누구도 신학 비슷한 것을 나와서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콜링(소명)은 학교를 만들고 또 거기를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소명)일수 있고, 절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받은 응답은 이러했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신학대학에 가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콜링(소명)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 직접 물어봐서 응답받으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콜링(소명)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잘 듣지 못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오직 아버지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많은 종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고, 인간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주님께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꼭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 찬양 속에서나 찬양 뒤에

엘리사 선지자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음악 하는 사람을 불러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음악 하는 자가 연주할 때에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열왕기하 3:15-16) 주님께서는 찬양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나 다윗이나 찬양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들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며 노래할 때 주님의 계시와 음성과, 주님의 도우심의 확신과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하며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귀도 떠나갔듯이 진정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

또 지진이 있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을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열왕기상 19:12) 보통 주님의 음성은 작은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에 임하기도 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천둥 같은 소리를 듣기도하고 (욥기 37:4) 우리의 생각으로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레마(Rhema)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쩔 때에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한다, 더 낫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고쳐주는 말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잠언 12:15)



하나님께서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길에 있는 광고사인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닭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심지어 당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든 생각의 틀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항상 “주님, 저에게 사물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또 꿈으로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을 때 제 방에 천사가 와서 떨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다가갈수록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볼 수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